

##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정규예배 시 '생활 속 거리두기(1m)' 방침에 따라 본당 지정된 예배석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신위형, 안성진, 추현희 이상 3명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번 주 토요일 (10/17) 청소담당은 카자흐스탄 목장(권용기 집사)입니다.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10/18) 주일간식담당은 호산나 목장(강숙여 권사)에서 섬기겠습니다.
5. 내일부터 새벽기도회를 비롯한 수요예배, 그리고 금요기도회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다만,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공지하겠습니다.)
6. 10월 '하늘문만나' 책자가 본당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 아직까지 안 가져가신 분은 꼭 가져가셔서 묵상하거나 전도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10월 18일	10월 25일	11월 1일	11월 8일
예배기도(2부)		오진석 집사	이현호 집사	박성근 집사	박성대 집사
예배기도(오후)		'코로나19'로 인해 없습니다.(추후 변경 가능)			
주일간식담당 (점심식사 No)		호산나목장 (강숙여 권사)	에스더목장 (오효근 권사)	양떼목장 (황희용 권사)	헝스바목장 (김금옥 권사)
토요일청소(고정)		우즈베키스탄목장 (첫째주 토요일)	캄보디아목장 (둘째주 토요일)	카자흐스탄목장 (셋째주 토요일)	키르기스탄목장 (넷째주 토요일)

###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2020년도 남-여 목장과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2. 교회학교(유치아동부, 중 고 학생부, 청년부)와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
3. 대입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신위형, 안성진, 추현희)
4.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터(함안), 온누리비전교회(양구)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 HANEULMUN VISION MESSAGE

###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중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	인도자
*성서교독	..... 교독문 54번(시 126:1-6)	다같이
*경배찬송	..... 43장(통 57장)	다같이
*참회기도	.....	다같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 214장(통 349장)	다같이
대표기도	.....	인도자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 창 19:231-29, 벧후 2:6-8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	인도자
말씀선포	.....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	인도자
*결단송	..... 620장	다같이
*축도	.....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로마서 강해 허영진 목사  
롬 6:1-14 '살아있는 자'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122)

새벽기도회 새벽 5:30 하늘문만나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니다.◆

끝 모를 수렁에서

이제 추석연휴도 끝이 났다. 언제나 올까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로 찾아 왔다가 미련도 아쉬움도 뒤로 한 채 훌쩍 떠났다. 그렇게 시간은 더디 흐를 것만 같은데 이내 우리네 시야에서 일순간 사라지고 만다. 그렇다. 지금 겪고 있는 힘겨움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 분명하다. 코로나 시국이라는 '끝 모를 수렁'에서 말이다. 다만, 지금 '끝 모를 수렁'으로 빠져가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 눈을 떠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 목숨보다 더 큰 생명을 소망하고 이 세상보다 더 큰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믿음이다.

'끝 모를 수렁'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하고, 분명히 그 끝은 있는데, 언제 그 끝이 나타날지 몰라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하다. 이 믿음은 또한 평탄한 곳에서 있는 이들이나 높은 곳에서 있는 이들에게도 필요하다. 어려움을 당하여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며, 평안하여 변영할 때 이 믿음이 있으면 교만해지거나 타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편 130편 6절 말씀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주를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것도 믿음으로 말이다. 이사가 26장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말이 있다. 새번역에서는 이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했다. 영어 성경에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완벽한 평화(perfect peace)를 주신다고 했다.

따라서 깊은 물에 빠졌을 때나, 흔들리지 않는 바위 위에 서 있을 때나,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불러야 한다. 주님의 이름은 어려울 때에만 부르고 형편이 나아지면 잊는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속적으로 시시때때로 그 이름을 불러야 한다. 또한 주님과 깊은 사귀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어려울 때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위기극복은 온전하지 못하다.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경험케 되는 위기극복이야말로 성도의 사명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반석과 산성이 되어 주심을 느끼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코로나 시국이라는 끝 모를 수렁에서 이제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보자.

Written by 허영진